

원희룡 장관, “신형열차 ITX-마음 타고 친환경 미래로” - 8월 25일 태백역 ITX-마음 개통식 찾아 시승 및 안전운행 당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 오후 4시 태백역에서 개최된 친환경 신형열차 ‘ITX-마음’ 개통식*에 참석하여, 9월 1일 운행개시 전 열차를 점검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안전한 운행을 당부하였다.
 - 이날 행사에서는 신형 일반열차 EMU-150의 새로운 이름을 ‘ITX-마음’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, 한국철도공사가 미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의 디젤 여객기관차를 친환경 동력분산식 전기열차로 대체하는 계획도 발표되었다.
- 원 장관은 “이번에 도입되는 신형 열차가 ‘ITX-마음’이라는 이름처럼 국민의 설레고 소중한 마음을 담고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바란다”며,
 - “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이용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, 이번 전기열차의 확대 도입으로 수송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라고 밝히며,
 - “무엇보다 국민께서 신형 열차의 향상된 편의성과 안전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, 한국철도공사는 차량검수와 안전교육, 운행 전 점검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한편, 원 장관은 “강원 지역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태백선 직선화사업,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원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”라며,
 - “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,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서 국회, 지자체, 재정당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8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